

‘설 명절 만은’ 완도 제한급수 일시 해제

21~24일 노화·보길 등 제한급수 지역 대상

비상용수·수원지 준설·해저관로 설치 등 총력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 완도에서 설명절 연휴 기간 제한급수가 일시 해제된다. 완도군은 18일 지난해부터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소안면과 금일읍, 노화읍, 보길면 등에 대해 21일부터 24일까지 제한급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주민들과 귀성객들이

생활용수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난해 완도군의 강수량은 765mm로 평년(1425mm) 대비 53%에 그쳤다. 완도군 전체 10개 수원지 저수율은 2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완도군은 가뭄극복을 위해 비상급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수량 부족 수원지 6개소에 철부선 4대와 급

수차 30대를 투입해 하루 2000t의 비상 용수를 보충하고 있다. 저수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부황제, 미라제 등 2개 저수지는 1차 준설을 마무리해 2만6000t을 확보했다. 추가로 준설이 가능한 4개 수원지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공사를 진행해 4200여톤의 원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해마다 극심한 물 부족 사태를 맞고 있는 노화·보길도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해저관로 설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육상 21.9km, 해저 9.2km 등 총 연장 31.1km의 관로가 설치되면 노화, 보길, 넓도, 백일도, 흑일도, 마삭도 주민들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 11일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노화 보길권역, 약산금일권역 광역상수도 설치 사업비 1541억 원 중 국비 1078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며 “광역상수도 공급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이두식 기자

해남 고향사랑기부제 줄 이어

향우 주축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쾌척 이어져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에 향우 등 각계의 기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17일에는 전 K리그 축구선수 출신 한신대학교 명왕성 교수가 자신의 고향이자 아버지 명현관 군수가 고령을 펼치고 있는 해남군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 해남군에는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에 150명이 동참했으며, 담지한 고향사랑기부금이 제도 시행 2주 만에 6000만원을 넘어섰다.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12명이 4700만원을 기부했으며,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 138명 1300만원으로 해남 출신 향우들과 각계각층 해남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전 국민이 합심해 이루어 낸 결과라고 밝혔다. 정치인으로는 시행 첫날 해남 현산 출신 박광은 국회의원의 1호 기

부를 시작으로 같은 현산 출신 최대호 안양시장이 시급고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300만원을 기탁했으며, 지역기반 성장기업인으로는 ㈜유맥 임장택 대표가 자녀들(임준범, 임현호)과 함께 1500만원을, 원광전력 전연수 대표가 200만원을 기탁했다. 향우회로서 가장 규모가 큰 재광주해남군향우회에서는 화산 출신으로 나주에서 중소기업 운영 중인 김보수 대표, 현 재광주 해남군향우회장인 현대야미스 그룹 김우열 회장, 前 재광주해남군향우회장을 역임한 새천년한국약국 유경식 대표, 광주 동림동 소재 ㈜코아스 김영태 대표가 고향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각각 최고액 500만원을 쾌척했으며 현 재경 계곡면 향우회 오득심 회장이 지난 11일 제14회 회장 취임식에서 100만원을 기탁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무안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기반 확대에 13억

무안군이 디지털 농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재배기술 연구 개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지도 시범 및 연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군에 따르면 과학영농 관련 시범 및 연구 사업은 디지털영농 시범사업 3개(사업비: 4억 70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육성 시범사업 1개(3억원), 과학영농 분석 및 배양시설 4개(5억 4000만원), 재배기술 실증 연구사업 1개(200만원) 등 4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3억원이 투입된다.

과학영농기반 확대는 농촌지도 사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를 통한 농업인 생산비 절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목 도입으로 생산을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과학영농 분석 및 배양시설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고 화학비료 등 생산자재 저 투입을 통한 경영비를 절감, 신속 아열대작목의 우리군 환경적응성 및 재배 신기술 실증연구 결과를 농업인 교육과 연계한다. 특히 스마트팜 영농단지 구축 기반 조성과 기후변화 아열대작목 육성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3.6배 증가한 4억원을 편성, 사업대상을 0.3ha 이상 희망인으로 추진해 스마트팜 및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국민이 사랑하는 섬 만든다... 신안 가거도 프로젝트

이달 중 홍보 캠페인 등 마스터플랜 마련

신안군은 정부에서 올해의 섬 1호로 선정한 가거도를 전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가거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달 중 올해의 섬 선포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올해의 섬은 어디?’ 퀴즈 이벤트, 홍보 캠페인, 탐방 프로그램, 가거도 페스티벌과 200억원 규모의 관광인프라 확충 계획 등 가거도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거도는 물리적 거리감이나 시간적·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일부 낚시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크

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난 2019년 직항로 개설에 따라 물리적 거리감 등은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왕복 10만원에 달하는 운임은 가거도 여행의 걸림돌이었다. 신안군은 올해의 섬 가거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정부에 여행 선 운임 50%를 상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여행선사가 자발적으로 5~10% 할인하는 것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10명 이상 가거도를 여행할 때 1인당 1만 5000원을 현금 지원한다. 여행사 뿐만 아니라 올 한해에는 산악

회, 낚시 동호회 등 일반단체도 대상이 된다. 대규모 축제도 구상하고 있다. 가거도 밭치잡이 노래, 섬 문화축제, 낚시대회, 등산대회 등을 담은 가거도 페스티벌을 상하반기에 개최한다. 이곳도어 레크리에이션 트렌드에 맞춰 자연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섬 캠프장 조성, 영해 기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산책길도 정비한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철새 탐조대회, 봄·여름·가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편물을 연발에 단 한 번 보내는 가거도 우체통을 보다 내실있게 다질 것이다. /신안=박정태 기자

월드고속훼리(주), 이혁영 회장 성금 3천만원 기탁

설 명절 이웃사랑 실천...2008년부터 총 5억9천만원 기부



목포-제주, 진도-제주 구간을 운항하는 씨월드고속훼리(주) 이혁영 회장이 지난 17일 목포 복지재단에 이웃사랑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이혁영 회장은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지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생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봉사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목포시에 성금을 기탁하는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주)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씨월드고속훼리(주)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총 5억9000만원을 목포시에 기탁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목포=김근호 기자

박상권 조각가, 고향 진도에 작품 기증

조각작품 7점 기증...주요 공원·관광지 등 설치 예정



진도군은 지난번 출신 박상권 조각가가 2억원 상당의 조각작품을 군에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증한 작품은 박 작가는 대표작인 ‘행복을 주는 사람’을 포함 총 7점, 2억 여원 상당이다. 박 작가는 조선대학교 조소과와 조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다수의 전시회 개최와 주요 미술대전 수상 경력을 가진 조각가이다. 아름다운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진도의 관광·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매년 추가로 작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해당 작품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언제나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공원과 관광지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진도=박재영 기자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등 측량수수료 30% 감면

영암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애인, 농업 보조사업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토지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한 경우이

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측량 의뢰 시 영암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영암=김형두 기자

건강과 웰빙의 대표 음식!

명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